한국 여자 축구 대표, 사상 첫 외국인 감독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을 새로 맡은 콜린 벨 감독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벨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2년 여자 아시안컵 본선까지 3년이다.

벨 감독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여자 축구팀의 최초 외국인 감독이 돼서 영광입니다." 라며 "팀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배움의 현장이 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팀 분위기를 만들겠다. 한국의 문화적 특징과 유럽적 특징을 잘 살려서 팀에 녹여내겠다. 활동적이며 경기를 주도하며, 경기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고 말했다.

벨 감독은 영국 태생의 독일 국적자로 알려졌지만 영국 국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까지는 영구 거주허가권을 받아 독일에 거주해왔다.

벨 감독은 28세 젊은 나이에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은퇴해 코블렌츠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2011년 SC 07 바드 노이에나르 감독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약 8년 간 여자축구팀을 맡았다.

▲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콜린 벨 감독. 여자 대표팀 감독에 외국인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독일 여자 분데스리가 FFC 프랑크푸르트 감독으로 취임해 2014년 독일컵 우승, 2015년 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2015-16시즌에는 노르웨이 명문 아발드네스 감독으로 부임했으며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일랜드 여자 국가대표팀을 감독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허더스필드 수석코치로 활동했다.

벨 감독의 A매치 데뷔전은 오는 12월 10일 부산서 개최되는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개막전이 될 전망이다.

'테니스 황제' 페더러, 브랜드 가치 1위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8·스위스, 사진)가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프로 스포츠 선수로 조사됐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스포츠 선수와 팀, 대회, 사업 등 4개 분야에 걸쳐 브랜드 가치 순위를 매겨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페더러는 62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 받았다. 페더러는 2017년 조사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가 3300만 달러의 브랜드 가치로 2위에 올랐다. 우즈는 2007년 시작한 이 조사에서 2013년까지 1위를 지켰다. 그는 2014년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35·미국)에게 1위를 내줬다가 2015년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가 29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팀 브랜드 가치에선 미국프로풋볼(NFL)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10억3900만 달러로 1위,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가 8억150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대회 분야에선 미국 슈퍼볼이 7억8000만 달러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하계올림픽이 3억7500만 달러로 2위,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남자농구 디비전1의 '파이널 포' 가 3억달러로 3위에 자리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은 2억8200만 달러로 4위였다.

LPGA 커미셔너 "한국 선수들 성공, 세계적으로 긍정 효과"

마이크 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커미셔너(사진)가 여자 골프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꼽았다.

지난 22일 '뉴스1' 에 따르면 완 커미셔너는 이날 부산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 밸리·레이크 코스(파72·6726야드)에서 열린 LPGA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기자회견에서 "LPGA투어는 미국 투어로 인식되기 보다 미국에 기반을 둔 월드 투어다. 한국 선수들의 성공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 고 말했다.

완 커미셔너는 LPGA투어를 미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든 경기가 열릴 수 있는 글로벌 투어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 선수들의 역할도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3~4개 국가에서만 여자 골퍼가 배출됐다. 하지만 지금은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여자 골프 선수가 나오고 있다." 며 "많은 국가들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성공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0~15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 골퍼가 없던 곳에서도 어린 여자 선수들에게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완 커미셔너는 LPGA투어의 상금 규모도 많이 늘어났다며 여자 골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만 하더라도 총상금이 300만달러(약 35억원)가 넘는 대회는 단 하나 뿐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두 개의 대회가 500만달러(약 58억원), 3개 대회가 400만달러(약 46억원)를 넘어서게 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완 커미셔너는 "LPGA투어도 많은 성장을 이뤄냈지만 미국프로골프(PGA)투어의 상금도 많이 올랐다." 며 남녀 골프 대회의 상금 차이가 크다는 현실은 인정했다.

완 커미셔너는 "LPGA는 부산을 제2의 고향으로 만들고 싶다." 며 "세계에 부산을 자랑하고 싶다. " 고 덧붙였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